

2023년 12-1

# KIET 경제·산업동향

2023년 12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 차 례 〉

〈 요 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 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2023년 수출입 평가 및 2024년 전망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3년 12월) ]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 요약 〉

### □ 해외경제 : 日 3분기 성장률 전기비 -0.7%, 유로존 -0.1% 성장

- 미국은 10월 경제지표들이 동반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도 높은 인플레이 수준으로 연준의 고금리 지속 기간에 관심이 고조
- 일본은 3분기중 내수 부진과 수출 약세 등의 영향으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전기비 -0.7%)을 기록하고, 유로존 역시 역대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마이너스 성장 여파로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0.1%)
- 중국은 10월 내수 지표들의 완만한 흐름과 수출 감소세 지속이 나타난 가운데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지방정부 재정 지원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
- 달러화는 11월중 美 고용·물가지표 약세와 美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12월 초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경계감으로 소폭 강세
- 유가는 11월중 美 원유재고 증가와 산유국들의 감산 이견 등으로 하락하고, 12월 초에도 산유국들의 감산 의구심과 中 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추가 하락

### □ 국내경기 : 10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6%, 소비·투자 감소 전환

- 10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전월과 달리 감소 전환(전월비 -3.5%)되고, 서비스업생산도 5개월 만에 감소(-0.9%)하면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1.6%)
  - 소매판매는 비내구재(-3.1%)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월비 0.8%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기계류(-4.1%)와 운송장비(-1.2%)가 감소하면서 3.3% 감소

### □ 금융 : 10월 기업대출 둔화 및 가계대출 확대, 12월 초(12월 1일 ~ 8일) 금리 하락 및 원/달러 약보합

- 10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의 증가세 속에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된 반면,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기타대출이 전월과 달리 증가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11월중 美 국채금리 하락 전환, 인플레 우려 완화 등으로 하락하고, 12월 들어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으로 추가 하락세
- 원/달러 환율은 11월중 달러화의 약세 전환과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 등으로 하락하고, 12월 초에는 일시 반등세를 보인 이후 재차 하락 전환

#### □ 산업별 동향 : 10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1.2%, 서비스업생산 +0.8%

- 제조업생산은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하고, 반도체와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동월비 1.2% 증가
  - 제조업ICT와 중공업 생산은 둔화되고, 경공업 생산은 감소폭이 확대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점 등의 업종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와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0.8% 증가

#### □ 고용 : 10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지난 10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에,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증가 전환되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3개월 연속 상승(1.1% → 1.2%)

#### □ 수출입 : 11월 수출 +7.8%, 수입 -11.6%, 무역수지 38억 달러 흑자

- 지난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7.8% 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이 11.6% 감소한 520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로는 컴퓨터·철강·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의 수출만이 감소하고,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와 일반기계, 가전 등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데다, 지역별로는 미국·일본·EU 등 선진권 시장을 비롯해서 인도·아세안·중남미 등 신흥권 시장으로의 수출이 동반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증가율

## 1. 해외경제

### □ 미국 : 10월 경제지표 동반 약세, 연준의 고금리 지속 기간에 관심 고조

○ 10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체감지표들과 선행지수의 동반 하락이 나타나면서 실물경기 여건의 약세를 반영. 연준의 금리인상 마무리 전망에도 높은 인플레이 수준으로 연준의 고금리 지속 기간에 주목

- 산업생산이 광업(전월비 0.4%)을 제외한 제조업(-0.7%)과 유틸리티(-1.6%) 부문의 동반 감소 여파로 4개월 만에 감소(-0.6%)하고, 소매판매도 주유소(-0.3%)와 자동차·부품(-1.0%) 등의 판매 감소로 7개월 만에 감소(-0.1%)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생산, 수주, 고용 등의 감소 여파로 기준치(50)를 여전히 하회하면서 4개월 만에 하락하고, 소비자신뢰지수도 현재 평가지수(147.1)와 미래 기대지수(73.7)의 동반 하락으로 5개월 만에 최저
-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증가 규모가 전월과 달리 축소(8월 22.7만 개 → 9월 33.7만 개)되고, 경기선행지수도 2022년 4월부터 19개월 연속 하락세
-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인플레이가 연준의 목표치(2.0%)를 여전히 상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금리 지속 기간에 주목

###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5.8	1.9	2.2 (1.7)	2.1 (2.4)	5.2 (3.0)				
산업생산 (IT생산)	4.4 (9.7)	3.4 (2.4)	-0.1 (-0.9)	0.2 (6.7)	0.5 (5.5)	0.9 (2.3)	0.0 (1.6)	0.1 (1.4)	-0.6 (1.4)
내구재수주	18.4	8.3	-0.1	5.4	-1.1	-5.6	-0.1	4.0	-5.4
소매판매	18.2	9.7	1.1	0.1	1.7	0.6	0.7	0.9	-0.1
소비자물가	4.7	8.0	0.9	0.7	0.9	0.2	0.6	0.4	0.0
실업률(%)	5.4	3.6	3.5	3.6	3.7	3.5	3.8	3.8	3.9
무역수지(10억US\$)	-841.6	-951.2	-201.8	-203.8	-184.7	-65.0	-58.6	-61.2	-64.3
ISM 제조업지수 <sup>1)</sup>	60.6	53.5	47.1	46.7	47.7	46.4	47.6	49.0	46.7
소비자신뢰지수 <sup>2)</sup>	112.0	104.5	104.5	105.4	109.0	114.0	108.7	104.3	102.6
경기선행지수 <sup>3)</sup>	113.8	114.8	109.4	106.7	105.3	105.8	105.4	104.7	103.9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9월 실물지표 반등, 3분기 성장률 3분기 만에 마이너스(-0.7%)

- 9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무역수지가 수출의 증가(4.3%) 전환과 수입의 대폭 감소(-16.4%) 영향으로 3개월 만에 흑자. 지난 3분기중 소비와 투자의 동반 감소 등 내수 부진 및 외수(수출) 약세 등의 영향으로 4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전기비 -0.7%, 전년동기비 기준 1.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6	1.0	1.2	0.9	-0.7				
광공업생산	5.8	0.0	-1.8	1.4	-1.2	2.4	-1.8	-0.7	0.5
민간기계수주	6.0	5.5	2.6	-3.2	-1.8	2.7	-1.1	-0.5	1.4
소매판매	2.0	2.6	2.5	0.5	2.5	-0.6	2.2	0.2	0.4
소비자물가	-0.2	2.5	0.5	0.7	0.8	0.2	0.4	0.2	0.3
실업률(%)	2.8	2.6	2.6	2.6	2.7	2.5	2.7	2.7	2.6
무역수지(10억엔)	-1,784	-19,966	-5,185	-1,779	-935	39	-64	-943	72
경기선행지수 <sup>1)</sup>	114.2	112.0	108.3	108.6	108.7	108.8	108.2	109.2	108.7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20년=100.

□ 중국 : 10월 내수 완만·수출 감소, 中 정부 적극적 재정정책 지속 시행

- 10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이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에, 수출이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 내수 약세 및 물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 우려 속에서 中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184조원)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 추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실질GDP)	9.1	3.0	4.5	6.3	4.9				
산업생산	9.3	3.4	3.2	4.5	4.2	3.7	4.5	4.5	4.6
고정투자(누계기준)	4.9	5.1	5.1	3.8	3.1	3.4	3.2	3.1	2.9
소매판매	12.4	-0.8	7.1	11.4	4.2	2.5	4.6	5.5	7.6
소비자물가	0.9	2.0	1.3	0.1	-0.1	-0.3	0.1	0.0	-0.2
수출(달러화기준)	29.6	5.6	-1.7	-4.6	-9.6	-14.1	-8.4	-6.1	-6.4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 유로존 : 9월 실물지표 감소, 3분기 역내 마이너스 성장 기록(-0.1%)

- 9월 역내 실물지표들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여 만에 최저.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마이너스 성장(-0.1%) 여파로 3분기 성장률이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 마이너스(전기비 -0.1%, 전년동기비 0.1%)

###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실질GDP)	5.9	3.4	0.0	0.2	-0.1				
산업생산	8.8	2.2	-1.2	-1.2	-1.2	0.1	-1.3	0.6	-1.1
소매판매	5.1	0.9	-0.1	0.0	-0.5	0.0	-0.1	-0.7	-0.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6	8.4	8.0	6.2	5.0	5.5	5.3	5.2	4.3
무역수지(10억유로)	97.9	-340.5	-7.2	1.5	23.8	8.1	3.5	11.2	9.2
경제체감지수 <sup>1)</sup>	110.7	101.9	99.2	96.9	93.9	95.3	94.6	93.7	93.4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약세 & 유가 하락 지속

- 달러화는 11월중 무디스의 美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도 美 고용·물가지표 약세와 美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12월 초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경계감으로 소폭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유가는 11월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美 원유재고 증가와 글로벌 원유 수요 불안,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이전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12월 들어서도 산유국들의 감산 의구심과 중국 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추가 하락

###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3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8일
엔/달러	132.86	136.30	139.34	144.31	142.29	145.54	149.37	151.68	148.20	144.95
달러/유로	1.0839	1.1019	1.0689	1.0909	1.0997	1.0843	1.0573	1.0575	1.0888	1.0763
미 국채 (10년만기)	3.47	3.42	3.64	3.84	3.96	4.11	4.57	4.93	4.33	4.23
WTI유	75.7	76.8	68.1	70.6	81.8	83.6	90.8	81.0	76.0	71.2
두바이유	76.8	78.9	72.1	76.1	85.6	87.2	92.9	86.7	84.3	76.1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10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6%, 소비·투자 감소 전환

○ 10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전월과 달리 감소 전환(전월비 -3.5%)되고, 서비스업생산도 5개월 만에 감소(-0.9%)하면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1.6%)

- 광공업생산은 자동차(3.2%) 생산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11.4%)와 기계장비(-8.3%) 등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월비 3.5% 감소하고, 서비스업생산도 도소매(-3.3%)와 운수·창고(-1.4%)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월비 0.9% 감소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GDP성장률	4.3	2.6*	0.9* (0.3*)	0.9* (0.6*)	1.4* (0.6*)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3.6	4.1*	4.6* (0.6*)	1.6* (-0.1*)	0.2* (0.3*)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9.3	-0.9*	5.9* (-5.0*)	4.7* (0.5*)	-4.2* (-2.2*)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6	-2.8*	1.9* (1.3*)	1.7* (-0.8*)	3.8* (2.1*)	-	-	-	-
전산업생산지수	5.3	4.6	1.2 (0.7)	-0.5 (0.3)	0.8* (1.1*)	-1.4 (-0.8)	1.2 (1.9)	2.7* (1.0*)	1.0* (-1.6*)
광공업생산지수	8.2	1.4	-9.7 (-0.9)	-7.6 (3.1)	-2.1* (1.8*)	-8.1 (-2.0)	-0.8 (5.2)	2.9* (1.7*)	1.1* (-3.5*)
제조업생산지수	8.4	1.4	-10.0 (-0.9)	-7.8 (3.3)	-2.2* (1.8*)	-8.3 (-2.2)	-0.8 (5.3)	2.9* (1.9*)	1.2* (-3.5*)
서비스업생산지수	5.0	6.7	6.4 (1.2)	2.3 (-0.3)	1.9* (0.7*)	1.9 (0.3)	1.6 (0.2)	2.1* (0.5*)	0.8* (-0.9*)
소매판매액지수	5.8	-0.3	-0.4 (1.1)	-0.2 (-0.3)	-2.8* (-2.6*)	-1.7 (-3.2)	-4.7 (-0.3)	-2.0* (0.1*)	-4.4* (-0.8*)
설비투자지수	9.6	3.3	-0.5 (-8.8)	-1.2 (1.3)	-10.5* (-3.5*)	-11.2 (-8.9)	-14.6 (4.1)	-5.6* (8.7*)	-9.7* (-3.3*)
건설기성(불변)	-6.7	2.7	11.5 (4.6)	8.9 (-0.8)	10.5* (1.0*)	10.2 (0.5)	10.0 (2.5)	11.3* (0.2*)	4.1* (0.7*)
동행종합지수(2020=100)	103.7	108.2	108.8	110.2	110.0*	110.0	110.0*	110.0*	110.1*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9.4	100.9	99.7	100.2	99.4*	99.6	99.4*	99.2*	99.1*
선행종합지수(2020=100)	106.2	108.7	109.4	109.9	111.5*	111.1	111.4*	111.9*	112.4*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4	100.3	99.0	98.7	99.3*	99.3	99.3*	99.4*	99.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전월비 4.3%)와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0%) 판매가 동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 판매가 전월과 달리 감소하면서 전월비 기준 감소 전환(0.1% → -0.8%)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4.1%)와 운송장비(-1.2%) 모두 전월과 달리 감소하면서 3개월 만에 감소(-3.3%)하고, 건설기성액(불변)은 토목(-1.0%) 공사 실적의 부진에도 건축(1.3%) 공사 실적의 호조에 증가세가 지속(0.7%)
- 동행종합지수는 수입액과 내수출하지수 등이 하락한 반면에, 광공업생산지수와 건설기성액 등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소폭 상승(전월비 0.1%)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코스피지수와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하락한 반면에, 기계류 내수출하지수와 장단기금리차 등이 상승하면서 6개월 연속 상승세(0.4%)

## □ 물가 : 1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6%, 전년동월비 +3.3%

- 11월 소비자물가는 음식·숙박(전월비 0.2%) 등 소수 부문에서 상승하고, 식료품·비주류음료(-2.6%), 교통(-1.8%), 주택·수도·전기·연료(-0.1%) 등 다수 부문에서 하락한 영향으로 전월비 0.6% 하락(2022년 11월 이후 처음 하락)
- 10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전월비 0.2% → -5.5%)한 데다, 공산품 가격의 상승세가 현저히 둔화(0.9% → 0.1%)되고, 서비스 가격 역시 소폭 상승(0.1%)에 그치면서 전월비 0.1% 하락(전년동월비 0.8%)

##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2.5	5.1	4.7 (1.1)	3.2 (0.6)	3.1 (1.0)	2.7 (0.0)	2.3 (0.1)	3.4 (1.0)	3.7 (0.6)	3.8 (0.3)	3.3 (-0.6)
근원물가	1.8	4.1	4.9 (1.3)	4.3 (0.9)	3.9 (0.4)	4.1 (0.2)	3.9 (-0.1)	3.9 (0.2)	3.8 (0.3)	3.6 (0.4)	3.3 (0.0)
생산자물가	6.4	8.4	4.4 (0.1)	0.6 (-0.3)	0.7 (0.7)	-0.3 (-0.2)	-0.3 (0.3)	1.0 (0.9)	1.4 (0.5)	0.8* (-0.1*)	-
근원물가	6.0	6.4	2.6 (0.3)	0.3 (0.1)	0.3 (0.1)	-0.4 (-0.3)	-0.4 (0.0)	0.5 (0.5)	0.8 (0.2)	0.7* (0.1*)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 3. 국내금융

#### □ 기업자금·가계대출 : 10월 기업대출 둔화 및 가계대출 확대

- 지난 10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2023년 9월 +11.3조원 → 10월 +8.1조원, 대기업 +4.3조원, 중소기업 +3.8조원)
  - 대기업 대출은 기존 직접금융조달(회사채 등) 기업의 대출 활용과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전월보다 상당폭 증가
  -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은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에도 전월말 추석 연휴로 지연된 대출금 상환 등으로 증가폭이 현저히 축소
- 회사채는 은행대출 등 대체 조달수단 활용으로 순상환 규모가 확대  
(2023년 9월 -0.8조원 → 10월 -2.3조원)
- CP·단기사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순발행 기조가 지속  
(2023년 9월 +2.0조원 → 10월 +2.5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과 달리 소폭 증가  
(2023년 9월 +2.9조원 → 10월 +0.6조원)

####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10월말 잔액
	1~10월	10월	1~10월	10월	1~10월	8월	9월	10월	
■은행 원화대출	82.9	10.3	103.6	13.7	76.1	8.2	11.3	<b>8.1</b>	1,246.4
(대 기 업)	6.2	2.2	37.2	9.3	32.5	2.9	4.9	<b>4.3</b>	248.4
(중소기업)	76.7	8.1	66.4	4.4	43.6	5.2	6.4	<b>3.8</b>	998.0
〈개인사업자〉	33.2	2.6	20.2	0.1	7.5	1.2	0.8	<b>0.5</b>	450.3
■회사채 순발행	17.1	0.2	-5.4	-3.2	-0.3	-1.1	-0.8	<b>-2.3</b>	..
■CP 순발행	6.5	-1.0	18.7	3.1	5.7	-1.8	2.0	<b>2.5</b>	62.2
■주식발행	26.0	1.1	20.6	0.4	7.1	0.5	2.9	<b>0.6</b>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

- 10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과 달리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기타대출이 전월과 달리 증가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2023년 9월 +4.9조원 → 10월 +6.8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 자금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월비 증가 규모는 축소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3년 9월 +6.1조원 → 10월 +5.8조원)
- 반면에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월초 연휴 소비자금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  
(2023년 9월 -1.3조원 → 10월 +1.0조원)

###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10월말 잔액
	1~10월	10월	1~10월	10월	1~10월	8월	9월	10월	
은행 가계대출	69.1	5.2	-1.9	-0.7	28.5	6.9	4.9	<b>6.8</b>	1,086.6
■주택담보대출	52.6	4.7	16.0	1.3	40.8	7.0	6.1	<b>5.8</b>	839.6
■기타대출	16.4	0.5	-17.9	-1.9	-12.1	-0.1	-1.3	<b>1.0</b>	245.7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

### □ 금리·환율 : 12월 초(12월 1일 ~ 8일) 금리 하락 및 원/달러 약보합

- 국고채(3년) 금리는 11월중 美 노동시장의 과열 진정 조짐과 美 국채금리 하락 전환, 국내외 인플레이 우려 완화 등으로 3.6%대까지 하락하고, 12월 초에도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과 외인의 국채선물 매수 등으로 추가 하락  
(12월 1일 3.587% → 12월 8일 3.461%, -0.13%p)
- 원/달러 환율은 11월중 무디스의 美 신용등급 전망 하향과 위안화 약세 등에도 달러화의 약세 전환과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 등으로 하락하고, 12월 초에는 단기 하락에 따른 경계 심리로 일시 상승한 이후 재차 하락 전환  
(12월 1일 1,305.8원 → 12월 8일 1,306.8원, +1.0원)

###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1		2022		2023				
	4/4	2/4	3/4	4/4	1/4	2/4	3/4	11월	12.8일
국고채(3년)	1.80	3.55	4.19	3.72	3.27	3.66	3.88	3.58	<b>3.46</b>
회사채(3년, AA-)	2.42	4.36	5.28	5.23	4.07	4.47	4.64	4.32	<b>4.17</b>
CD(91일)	1.29	2.04	3.24	3.98	3.59	3.75	3.83	3.84	<b>3.84</b>
CP(91일)	1.56	2.34	3.30	5.28	4.01	4.02	4.08	4.36	<b>4.36</b>
원/달러	1,188.8	1,298.4	1,430.2	1,264.5	1,301.9	1,317.7	1,336.5	1,290.0	<b>1,306.8</b>
원/100엔	1,030.2	946.5	993.3	953.2	981.4	907.0	901.3	877.3	<b>919.2</b>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 4. 산업별 동향

### □ 제조업생산 : 10월중 전년동월비 +1.2%, 전월비 -3.5%

○ 제조업생산이 기계장비(-13.3%), 섬유제품(-5.4), 전자부품(-3.3%) 등에서 감소한 반면에, 반도체(14.7%)와 1차금속(17.3%), 기타운송장비(9.1%), 자동차(2.8%)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1.2% 증가(2개월 연속 증가세)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7.8%)과 중공업(2.2%)에서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된 반면, 경공업(-4.3%)에서는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

- 전월비 기준으로는 자동차(3.2%)와 1차금속(4.0%), 전자부품(10.4%) 등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11.4%), 기계장비(-8.3%), 기타운송장비(-5.2), 화학제품(-1.2%), 섬유제품(-4.3%)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함에 따라 3.5%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1.7)는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나, 반도체, 기계장비,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0.4% 상승(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2.3%로 전월과 달리 8.4%p 상승 전환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10월중 재고 증가폭(8.3% → 8.5%,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이 확대된 반면, 출하는 감소 전환(2.7% → -1.3%)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3%로 2개월 연속 하락세(3개월 만에 최저치)

### □ 서비스업생산 : 10월중 전년동월비 +0.8%, 전월비 -0.9%

○ 서비스업생산도 도소매(-3.7%), 숙박·음식점(-5.2%), 정보통신(-0.3%) 등에서 감소한 영향에도 운수창고(6.6%), 전문·과학·기술서비스(2.8%),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3.3%)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하면서 소폭 증가(0.8%)

- 전월비로는 정보통신(1.3%)과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0.0%)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도소매(-3.3%), 운수창고(-1.4%), 숙박·음식점(-2.3%), 전문·과학·기술서비스(-0.7%) 등 업종에서 감소함에 따라 0.9% 감소 전환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0.5%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4.2% 감소

#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0년)	2021	2022	2023						
				1/4	2/4	3/4*	8월	9월*	10월*	전월비*
<b>광공업 (원지수)</b>	10,000	108.2	109.7	99.5	104.6	106.1	105.6	108.9	107.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2	1.4	-9.7	-7.6	-2.1	-0.8	2.9	1.1	-3.5
<b>제조업 (원지수)</b>	9,569.5	108.4	109.9	98.8	105.2	106.4	105.7	109.6	107.7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4	1.4	-10.0	-7.8	-2.2	-0.8	2.9	1.2	-3.5
섬 유	113.4	2.0	-3.5	-7.8	-9.1	-6.9	-6.0	-4.5	-5.4	-4.3
화 학	854.2	8.6	-9.9	-20.4	-16.1	-3.2	-2.6	0.8	-0.1	-1.2
철 강	496.6	5.2	-8.5	-6.5	-2.6	3.4	-0.5	21.1	26.3	4.9
반도체	2,023.8	26.8	7.6	-33.8	-18.6	4.7	8.4	23.6	14.7	-11.4
컴퓨터, 주변장치	32.4	27.5	11.0	0.7	-14.7	-17.3	-8.8	8.3	7.6	3.1
통신, 방송장비	171.0	23.5	-5.1	17.6	-12.6	-10.2	0.7	-18.4	-22.2	0.4
의료, 정밀, 광학	217.2	17.8	6.6	-4.3	-13.9	-14.6	-14.0	-14.2	-13.2	-5.2
기계, 장비	737.3	12.1	1.1	0.7	-6.5	-12.8	-13.8	-9.7	-13.3	-8.3
자동차	987.5	6.3	9.1	21.6	15.4	4.7	8.2	0.0	2.8	3.2
조 선	66.0	-7.2	20.7	19.6	4.6	9.3	12.5	9.7	-4.1	-6.7
- 중 공 업	-	9.9	1.5	-10.7	-7.7	-1.6	0.1	4.0	2.2	-3.6
- 경 공 업	-	1.3	0.4	-5.6	-8.3	-5.9	-6.0	-3.8	-4.3	-2.5
- 제조업ICT	-	19.3	2.2	-30.5	-19.1	-1.4	1.3	12.2	7.8	-7.2
<b>서비스업 (원지수)</b>	1,000	105.0	112.0	111.8	115.2	114.6	113.9	115.6	114.4	-
전년동기비 증감률	-	5.0	6.7	6.4	2.3	1.9	1.6	2.1	0.8	-0.9
도소매	193.9	4.3	2.7	2.8	-1.1	-1.9	-3.5	-0.3	-3.7	-3.3
운수및창고	78.4	4.2	17.7	17.3	9.5	8.7	8.0	10.3	6.6	-1.4
숙박및음식점	44.4	1.9	16.9	16.3	-2.7	-4.7	-5.0	-1.3	-5.2	-2.3
정보통신	88.9	12.2	1.7	-1.7	-3.8	-1.7	-1.3	-3.6	-0.3	1.3
금융및보험	167.4	8.0	8.4	10.7	7.1	4.7	5.4	1.7	1.5	-1.2
부동산	38.7	2.3	8.0	4.1	3.0	2.4	2.1	2.2	-1.3	-3.0
전문·과학및기술	95.8	2.8	2.0	1.8	2.6	2.4	1.4	2.5	2.8	-0.7
사업시설관리 등	53.6	2.3	5.2	5.6	3.5	3.4	3.1	4.0	3.3	0.0
교 육	73.5	1.5	1.2	1.1	0.2	1.3	0.7	1.9	1.0	0.0
보건및사회복지	111.3	5.1	7.2	5.7	3.5	5.1	5.7	5.7	5.6	0.4
예술·스포츠및여가	17.5	15.4	43.6	20.8	7.0	-2.1	-0.7	4.4	1.8	4.2
협회·수리및개인	24.0	1.9	4.4	13.8	5.4	5.4	7.3	3.1	2.6	2.6
수도·하수및폐기물	12.6	2.3	-4.7	0.6	-1.6	-0.9	1.0	-1.0	-2.3	-1.3
- ICT서비스업	-	6.2	5.5	2.2	0.8	1.8	2.1	0.8	0.5	-4.2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 5. 고 용

### □ 취업자 수 : 10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지난 10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에,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증가 전환되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3개월 연속 상승(1.1% → 1.2%)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감소(-1.7%, 6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증가(-0.2% → 1.0%)하고, SOC·기타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3개월 연속 확대(1.7% → 1.8%)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1.7% → 0.7%)된 반면, 도 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증가세가 7개월 만에 확대(0.9% → 1.1%)
-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부문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5.2% → 5.9%)와 정보통신업(4.7% → 7.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1.6% → 2.6%),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1.2% → 2.8%)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에도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4.2% → 3.7%)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인해 전체 증가율이 전월보다 하락(1.8%)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5%로서 전월과 달리 소폭 하락

###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 산 업	27,273	28,089	27,767	28,693	28,687	28,812	28,686	28,678	28,698	28,764
전년동기비	1.4	3.0	1.5	1.2	0.9	1.2	0.7	0.9	1.1	1.2
농림·어업	0.9	4.6	-1.6	-0.3	-1.3	-0.8	-2.5	-1.1	-0.2	1.0
제 조 업	-0.2	3.1	-0.8	-1.1	-1.3	-0.2	-0.8	-1.5	-1.6	-1.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	2.9	2.1	1.8	1.5	1.6	1.3	1.6	1.7	1.8
건 설 업	3.7	1.6	-1.0	-2.4	-0.1	-2.8	-2.0	0.0	1.7	0.7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5	0.8	2.2	1.8	1.0	1.6	1.3	0.9	0.9	1.1
전기·운수·통신·금융	5.6	3.9	1.4	1.3	1.2	1.1	0.5	1.0	2.0	3.6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0	3.9	2.9	2.8	2.2	2.6	2.2	2.4	2.0	1.8
실업률 (계절조정, %)	3.7	2.9	2.7	2.6	2.6	2.6	2.8	2.4	2.6	2.5

자료 : 통계청.

## 6. 수출입

□ 11월 수출 7.8% 증가, 수입 11.6% 감소, 무역수지 38억 달러 흑자

○ 지난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7.8% 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이 11.6% 감소한 520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로는 컴퓨터·철강·석유제품 등의 수출만이 감소하고,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와 일반기계, 가전 등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데다, 지역별로는 미국·일본·EU 등 선진권 시장을 비롯해서 인도·아세안·중남미 등 신흥권 시장으로의 수출이 동반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증가율

- 수입은 석유제품 등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에, 낮은 국제가격 등으로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상당폭 감소(-22.2%)하면서 감소폭이 확대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94.2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3.2% 낮은 수준이고, 도입물량이 0.5%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금액이 2.7% 감소한 약 79억 달러를 기록

###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수출	6,444 (25.7)	6,836 (6.1)	1,512 (-12.8)	1,558 (-12.0)	1,572 (-9.7)	505 (-16.2)	520 (-8.1)	547 (-4.4)	551 (5.1)	558 (7.8)
수입	6,151 (31.5)	7,314 (18.9)	1,740 (-2.2)	1,593 (-13.2)	1,507 (-21.6)	487 (-25.4)	510 (-22.8)	510 (-16.5)	535 (-9.7)	520 (-11.6)
무역수지	293	-478	-228	-35	65	18	10	37	16	38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11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13대 품목중 철강·석유제품·컴퓨터 등 제외한 10개 품목 수출 증가

○ 반도체 : IT관련 업종(PC·모바일·서버)에서 재고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와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반도체 수요의 소

폭 회복 등에 힘입어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수출이 증가 시현

- **자동차** : 북미·EU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소비심리 위축에도 신차 출시 효과로 인한 고부가가치 차량 수요 증가와 친환경차 중심의 출고 지연 해소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2022년 6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미국 내 자동차 노조 파업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용 부품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선박류** : 고단가로 인한 국내 수주의 소폭 감소세 속에 지난 '21년도에 수주 받은 선박 물량의 생산·인도가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
- **디스플레이** : 국내 기업들이 LCD 생산을 지속 감축하고 있으나, IT제품 및 자동차 등 신시장 분야의 성장 지속, 스마트폰 패널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완제품·부품 수요의 동반 증가와 신형(아이폰15) 모델 출시 이후의 견조한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이 10개월 만에 증가
- **철강** :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건설 및 제조업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약세와 단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
- **섬유** : 대형 유통사들의 실적 부진에 따른 재고 누적으로 신규 오더가 줄어들고 있으나, 전방산업의 수요 회복에 따른 편직물·저용점섬유 등 소재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202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
- **석유제품** : 산유국들의 감산에 따른 공급 감소로 초과수요 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나, 주요 시장의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출이 감소 전환
- **석유화학** :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단가 하락에도 설비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와 주요국들의 견조한 소비수요 및 건설·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202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



- **일반기계** : 일부 수출시장(중국·EU)에서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내 견조한 수요 증가세와 신흥시장(중남미·중동)에서의 산업기계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연말 프로모션을 위한 수요 증가와 전년 동기간 주요 시장의 매출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데이터센터·서버 투자 위축에 따른 SSD 수요 감소와 글로벌 수요 약세 및 낸드 공급 과잉으로 수출이 17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

###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자동차	24.2	16.4	43.9	48.9	17.1	15.0	28.7	9.4	19.8	21.5
자동차부품	22.2	2.4	-3.6	1.0	0.4	-0.5	5.9	-3.5	-3.7	3.9
선박류	16.4	-20.9	0.7	21.3	-4.0	-30.9	35.1	14.4	101.4	38.5
일반기계	4.6	2.0	-2.1	5.6	6.7	2.8	7.7	9.8	10.5	14.1
철강	36.9	5.7	-15.8	-5.7	-5.5	-10.2	-11.3	7.3	-0.7	-11.1
석유화학	54.8	-1.4	-22.3	-24.3	-13.9	-23.8	-11.4	-5.1	-3.4	5.9
석유제품	57.7	64.9	-0.5	-34.8	-27.3	-39.3	-32.6	-6.1	18.0	-4.4
섬유	14.0	-4.0	-15.2	-11.2	-11.8	-15.4	-10.9	-8.5	-9.0	1.0
가전	24.0	-7.4	-8.5	-7.5	7.1	2.4	11.7	7.8	5.7	14.1
무선통신기기	45.9	-10.4	-13.4	-20.8	-8.4	-15.4	-8.6	-3.6	-4.5	8.4
컴퓨터	24.7	-4.7	-61.9	-61.6	-48.1	-33.4	-54.7	-53.9	-30.5	-29.4
반도체	29.0	1.0	-40.0	-34.8	-22.6	-33.6	-20.6	-13.6	-3.1	12.9
디스플레이	18.9	-1.1	-39.5	-16.5	1.2	-4.6	4.1	4.0	15.5	5.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11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부록	2023년 수출입 평가 및 2024년 전망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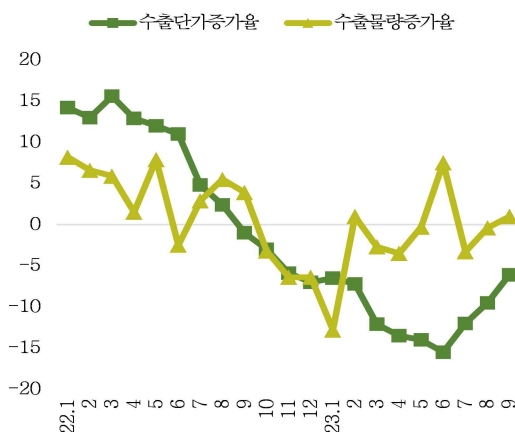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3년 12월)

- 2023년 수출은 전년 대비 7.8% 감소한 6,300억 달러, 수입은 11.8% 감소한 6,45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5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
-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가 6월부터 흑자로 전환

#### □ 2023년 수출입 동향 및 평가

- 수출은 2023년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에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
  - (품목별) 자동차·선박·일반기계 등의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한 반면에, 반도체·SSD·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등 주요 IT제품 수출이 크게 감소
  - (국가/지역별) 주요 소비시장인 미국·EU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국·베트남 등 생산기지가 밀집된 제조업 국가로의 수출은 감소세
- 수입은 상반기 에너지 수입 감소로 2023년 3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 시현
  - (품목별)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은 감소한 반면에, 수산화리튬 등 전기차 생산용 비에너지 수입액이 상당폭 증가
  - (단가/물량) 고물가·경기침체 우려로 1차산품, 중간재, 자본재 등 모두 감소
-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ICT 수요 감소 등이 올해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이 나, 전기차·배터리·양극재 등 전기동력화 품목이 新수출성장동력으로 부상
- 세계 수입 규모 감소와 중국경기 회복 지연, ICT 품목 수출 부진으로 우리의 세계 수출 순위는 8위로 하락,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0년 초반 수준인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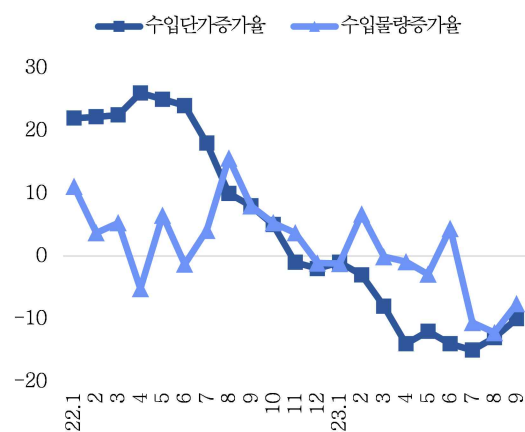
〈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증가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수출단가 = 수출금액 / 수출물량.

〈 수입단가 및 수입물량 증가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수입단가 = 수입금액 / 수입물량.

## □ 2024년 무역·통상 환경 및 수출입 전망

- 중국 부동산 위기, 유로존 경기 하강, 주요국 통화긴축 지속으로 저성장 전망
  - (환율) 美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고, 엔화·유로화·위안화는 2024년중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유가) OPEC 산유국들의 감산,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2024년에는 전년보다 높은 배럴당 90달러 내외가 예상
- 2024년 수출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6,800억 달러, 수입은 3.3% 증가한 6,66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40억 달러의 흑자를 전망
  - (수출) 반도체와 컴퓨터 등 IT제품이 수출 성장세를 주도하면서 13대 주력품목들의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수입·무역수지) 에너지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 증가가 예상되나, 수출 성장세가 수입 성장세를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흑자 전환이 예상

### 〈 2024년 수출입 전망 시나리오 〉

(단위: 억 달러, 전년대비 %)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기본)	(낙관적)	(비관적)
수출	6,300	6,800	7,020	6,580
(증가율)	(-7.8)	(7.9)	(11.4)	(4.4)
수입	6,450	6,660	6,730	6,830
(증가율)	(-11.8)	(3.3)	(4.3)	(5.9)
무역수지	-150	140	290	-250
무역규모	12,750	13,460	13,750	13,410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 2024년 품목별 수출 전망 〉

(단위: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	품목별 전망(증가율)
20% 이상	컴퓨터(45.6) 반도체(21.9)
5~10%	철강(7.8) 무선통신기기(7.1) 석유화학(5.6)
3~5%	디스플레이(3.7) 섬유(3.6) 자동차(3.0)
0~3%	가전(2.5) 일반기계(2.3) 선박(1.4) 자동차부품(0.4) 석유제품(0.4)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 결론 및 시사점

- 2024년 우리 무역환경은 글로벌 IT 수요, 지정학적 위기,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핵심 변수들의 양상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2024년에는 글로벌 IT수요의 점진적 개선,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의 긴장감 유지, 서방 국가들의 對중국 견제 등의 지속 속에서 세계경제는 2% 후반, 교역은 3% 초반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전 세계적으로 전쟁, 자연재해, 질병, 테러 등이 상시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거시환경 불확실성이 만연해지면서 세계경제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
  - 러·우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등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린전환·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과 맞물리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고조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 12.11일 )	( 12.12일 )	( 12.13일 )	( 12.14일 )	( 12.15일 )
	 11월 소비자물가  연준 FOMC(~12.13일)	 10월 산업생산  11월 생산자물가  11월 고용동향	 10월 기계수주  10월 산업생산(수)  ECB 통화정책회의  11월 소매판매	 11월 산업생산  11월 소매판매  11월 고정투자  10월 소매판매(수)  10월 수출입통계  11월 산업생산
( 12.18일 )	( 12.19일 )	( 12.20일 )	( 12.21일 )	( 12.22일 )
 BOJ 통화정책회의	 11월 소비자물가(수)	 11월 무역수지(잠)	 12월 소비자신뢰지수  23.3분기 실질GDP (확정치)  11월 생산자물가	 11월 소비자물가  11월 경기선행지수  11월 내구재수주(잠)  11월 개인소비
( 12.25일 )	( 12.26일 )	( 12.27일 )	( 12.28일 )	( 12.29일 )
 10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11월 실업률	 11월 무역수지(수)  12월 소비자동향조사	 11월 산업생산(잠)  11월 소매판매(잠)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11월 산업활동동향	 12월 소비자물가
( 1.1일 )	( 1.2일 )	( 1.3일 )	( 1.4일 )	( 1.5일 )
 12월 수출입통계		 12월 ISM 제조업지수		 12월 소비자물가(예)  12월 ISM 서비스업지수  12월 고용보고서